



교수들도 시국 선언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전남전북지부를 비롯한 호남권 29개 대학에 소속된 교수 및 연구자 200여 명이 27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교육관, 5·18기념재단이 말한다

공법단체 재공모 부적격으로 광주시 직영 1년만에 민간위탁 전환 시민사회 “교육관 원래 목적·취지 걸맞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을 맡을 위탁기관으로 5·18기념재단을 선정했다. 기존 위탁기관인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 자회가 재공모 과정에서 ‘기준 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관이 직영 체제로 전환된 뒤 1년 2개월만이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과 5·18기념재단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5·18교육관은 오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주의, 인권, 시민공동체정신 등을 후세에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지난 2010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세워져 대강의실, 중강의실, 세미나실, 생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민간 위탁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5·18기념재단은 업무 계획 등 협약을 거친 뒤 위탁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5·18기념재단은 5·18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추진, 교육관 각종 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시설이용자 편의 제공 및 시설 이용료 수납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을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5·18교육관을 민간위탁 체제에서 직영 체제로 임시 전환했다. 지난해 초 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했으나 심사 결과 적격 단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당초 5·18교육관은 민간위탁을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5·18구속부상자회(현 5·18공로자회)에서 운영해 왔다. 5·18공로자회는 지난해 계약이 만료되자 부상자회와 함께 민간위탁 신청을 했지만, 기준 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두 공법단체는 5·18 가해자인 특전사 단체가 사죄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줄소 화해를 추진하고, 회원·임원의 비리로 내용을 겪었다. 지

역 시민사회는 ‘교육관 운영 수탁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두 공법단체는 올해 민간위탁 공모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보직이동으로 5·18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재정 운영상 유연성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교육관을 다시 민간위탁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최종 2개 단체가 선정 심의를 받은 결과 5·18기념재단이 최종 선정돼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해졌다”며 “업무 계획 등에 대한 협상을 세심하게 거쳐 최종 수탁기관 선정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시민사회도 5·18기념재단의 교육관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김순 오월정신자키기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5·18교육관이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탁 운영기관이 바뀐만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추후 교육관장을 공모하거나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등 외부 전문가들과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교육관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시민 안전 체감도 끌어올릴 것”

취임 100일 맞은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대표적 수사통인 ‘광주 토박이’ ‘탈권위’ 부드러운 리더십 강점 “법·원칙 토대 공정한 법 집행”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박성주(58·경찰대 5기·사진) 광주경찰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이 안전을 체감하는 치안”을 거듭 강조했다.

27일 박 청장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광주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 토박이’인 박 청장은 대표적 수사통으로 통한다. 후배 경찰들 사이에서 ‘탈권위의 아이러니’ 이란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부드러운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 청장은 광주경찰의 목표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근 전세사기·마약·재난·안전사고 등 범죄 인식범위가 확장되고 SNS·AI 등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범죄가 늘고 있어서다.

박 청장은 사전 범죄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조직개편 후속조치, 정책 고도화, 신중범죄 대응, 공동체 확산”을 위해 세부 35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2024년 광주형 범죄예방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치안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박 청장의 지휘 아래 형사기동대는 전년 동기 대비 238% 늘어난 789건의 사건을 접수해 506건을 검거했다. 기동순찰대의 경우 올해 112 신고건수가 6만17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박 청장은 “신뢰는 모든 경찰활동의 근간이자, 목표”라면서 “법과 원칙에 토대를 두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상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 시민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광주의 치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체감안전도는 다소 저조하다”면서 “안전한 광주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변호사회장 선거 20년만에 경선

하재욱·김철수 변호사 2파전 내달 9일 모바일 전자투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20년 만에 경선(11월 7일자 광주일보 6면)으로 치러진다.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에 따르면 제58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임후보 마감일인 이날 하재욱(52·사법연수원 30기, 기호1번), 김철수(47·변호사시험 1회, 기호2번)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1948년 광주지방변호사가 창설한 이래 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른 건 1998년(제44대)과 2004년(제48대) 두 차례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선거는 제1부회장이 단독 출마해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관례였지만 올해는 현재 제1부회장인 하 변호사 이외에 공보이사인 김 변호사가 임후보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하 변호사가 선출되면 사법시험 명맥유지, 김 변호사가 뽑히면 로스쿨 출신

의 세대교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회장 선거는 다음달 9일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양측은 갈등보다는 축제 분위기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회장선거와 함께 감사선거도 진행된다. 감사 후보자는 장은백(변시 4회), 송지현(변시 1회), 정철진(변시 4회), 권오성(연수원 33기) 변호사 등 4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논술 유출’ 연세대, 결국 12월 8일 2차 시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일부 수험생과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연세대가 결국 추가 시험을 결정했다.

연세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에 따르면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연세대는 “1차 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으로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에

정일은 12월 13일”이라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2월 26일 이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으로, 중복자 등을 빼면 자연계 논술 전형 입학 정원은 당초 261명에서 최대 2배인 522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 단 위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명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 일: 2025. 1. 13.(월)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